

[바둑]

3월은 바둑의 계절... 빅 이벤트 풍성

봄을 맞아 바둑계도 기지개를 켜다. 최철한 9단과 박영훈 9단이 맞붙는 기상전이 2일 시작된 것을 비롯 국내 최고 기점인 국수전이 속개되는 등 3월 한달 동안 주요 대회가 일제히 막을 올린다.



<이창호 9단>

▲남·녀 국수전

윤준상 4단이 2승을 거두고 있는 국수전 도전 5번기 제3국은 12일 중국 무한에서 열린다.

신에 윤준상 4단이 이창호라는 거함을 쓰러뜨리고 생애 처음으로 국수 타이틀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농심배 우승을 이끌어 컨디션 회복에 들어간 이 9단의 반격이 예상되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9일부터는 국내 여류 최강자인 루이 나

국수전·LG배 기왕전·춘란배·일본 10단전 등 잇따라 '이창호 부활 VS 윤준상 첫 타이틀' 국수전 최대 관심

이창호 9단과 조혜연 7단이 제12기 가그린배 프로 여류 국수전 제1국에 돌입한다. 조 7단이 국내 여류 바둑계를 평정하고 있는 루이의 아성을 뚫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LG배 세계 기왕전

오는 19, 21, 22일에 3번기 승부가 펼쳐진다. 아쉽게도 준결승에 진출한 조한승과 홍민표가 탈락함에 따라 대만의 저우권선 9단, 중국의 후야오위 8단이 패권을 다툰다.

두 기사 모두 생애 첫 세계대회 패권에 도전한다. 저우권선과 후야오위가 천재일우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후야오위 8단이 정상을 차지할 경우 중국 바둑계는 또 하나의 세계 메이저 대회 타이틀을 추가하게 된다. 중국은 지난해 구리 9단의 우승 이후 LG배를 2연패 하에 게 된다.

▲춘란배

구리 9단과 창하오 9단은 오는 24, 26, 28일 춘란배 결승 3번기 승부를 갖는다. 중국이 주 최하는 유일한 세계 대회지만 중국 기사간 결승 대국은 처음이다. 중국 랭킹 1위인 구리는 이 대회에서 생애 2번째 세계대회 패권을 노린다. 구리로서는 지난해 LG배 결승에서 천야오위를 만난 이후 두번째 '형제대결'인 셈이다.

이창호 9단을 꺾고 삼성화재배 우승을 차지한 창하오 9단이 춘란배까지 손에 넣을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10단전·NEC배 결승전

오는 8일부터 초지훈 9단이 일본 랭킹 1위 아마시타 게이코 9단과 10단 타이틀 방어전을 치른다.

두 기사의 대국은 '역대 최강' 대 '현역 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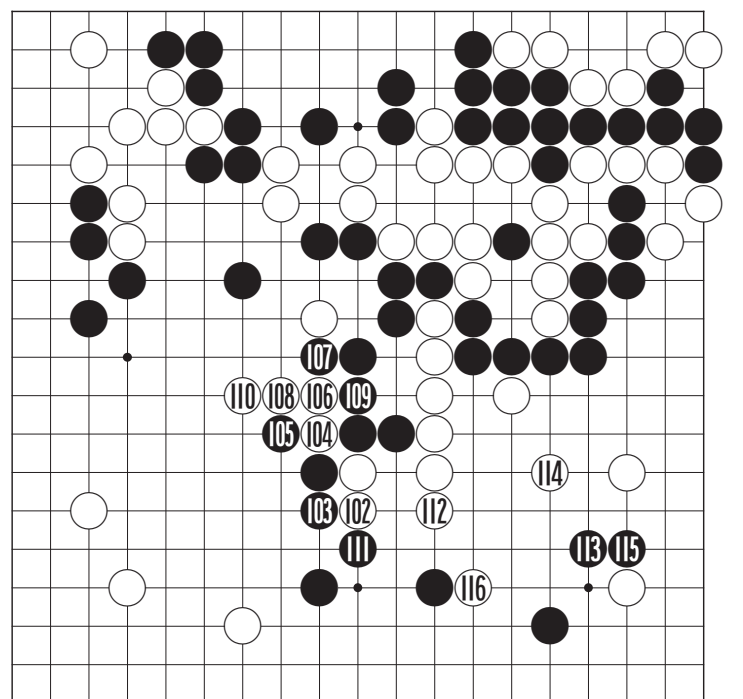
<윤준상 4단>

제35기 기왕전 LG배 명인전 예선 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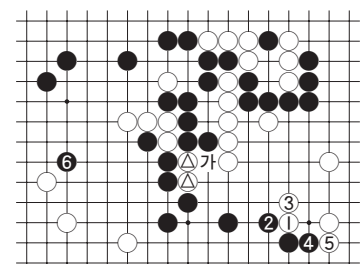
白 조훈현 9단

페부를 찢리다 7도(102~116)

黑 조경호 초단



<참고도>



백 102로 늘여두고 104로 끊어간 것은 어떻게든 반전의 실마리를 구하려는 것. 그러나 조경호군은 신참답지 않게 전혀 흔들리지 않고 109까지 완벽하게 막아내고 있다.

조경호군은 3개월간의 연습기간을 거쳐 12월부터 공식시합에 출전하기 시작했으니 전체 250여명의 프로기사 중 가장 막내인 셈이다. 조군이 12월에 첫출전을 했을 때 김수용군과 함께 고항 후배고 하여 조훈현 9단에게 인사를 시킨 적이 있었다.

그때 조 9단이 격려차 점심을 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오늘날과 같은 곤혹스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백 112는 버틴 것. 정수는 '참고도'의 백 1로 붙여 5까지 귀를 지켜야 되지만 이런 백 5의 두점이 '가'로 잡히는 수가 있어 흑 6으로 크게 보자기를 싸 오면 백에게 희망이 없다. 그러나 역시 흑 113으로 페부를 찢러오는 것이 너무나 아프다. 백 114의 수비가 절대여서 115로 관동당해서는 더이상 버틸 수가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이세돌 9단>

'대지에서 천하의 자웅 가리자'

한·중 대항전 남방장상배, 이세돌-뤼시허 9월 격돌

장상배 대회 출전자가 이세돌과 뤼시허로 결정됐다. 뤼시허는 제10회 삼성화재배 우승자로 출전권을 받았고, 이세돌은 제3회 도요타배에서 우승함에 따라 한국 대표로 출전했다.

'대지에서 바둑을 두고 천하의 자웅을 가린다.(横行大地 天下眞鳳)'란 주제로 열리는 남방장상배는 2년 만에 열리는 한·중 대항전이다.

원년대회 때는 조훈현 9단-창하오 9단이 대결을 벌여 조 9단이 승리를 거두었고, 제2회 대회에서는 이창호 9단-창하오 9단이 4패백이 나면서 무승부가 됐다.



박지은 '구체' 되다

〈具體=7단〉

국내 여류기사 두번째 영예 박지은이 한국 여류기사 가운데 두번째로 7단에 올랐다.

2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지난해 승단자는 모두 8명으로 7단 승단자는 한종진과 박지은 2명이다. 박지은은 지난 1월에 열린 강원랜드배 예선 1회에서 김대용 3단을 꺾음에 따라 승단의 기쁨을 누렸다.

영화안내 (Movie Guide) section with posters for 'Happy Time' and '영화안니'.

메가박스 (Megabox) advertisement for '홀라걸스' (Holla Girls).

엔터시네마 (Entertainment Cinema) advertisement for '마강호빌' (Makangobill).

콜롬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advertisement for '마강호빌' (Makangobill).

영화박스 (Movie Box) advertisement for '홀라걸스' (Holla Girls).

1번의기적 (The Miracle of Number 1) advertisem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대인부동산컨설팅 (Daein Real Estate Consulting)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금보부동산컨설팅 (Geombo Real Estate Consulting)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E+ Public Brokerage) for land and house sales.

Real estate advertisement: 현대공인중개사 (Hyundai Public Brokerage) for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법원경매 (Court Auction) with property listings and contact info.